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 보 람[†]

세브란스 병원

김 정 규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의 외상후 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경찰청에 근무하는 500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외상성 사건척도(Traumatic Event),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한국판 Beck 우울척도(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직무스트레스척도(Job Stress)이며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는 PTSD 증상 및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상성 사건 개수보다 주관적인 충격정도가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찰공무원, 외상성 사건, PTSD 증상, 우울, 직무스트레스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한보람 / 세브란스 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512호 / Tel : 02-2228-1635,6 / Fax : 02-313-0891 / E-mail : saja83@yuhs.ac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사건이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는 이들로 부터의 피해와 충격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증가함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거리의 부랑자, 포주, 조직폭력배 등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한계집단’과 부딪혀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가정과피, 존속살인 등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다루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성격상 매우 위험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위대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살해당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기도 하고, 범죄자들과 대치하여 싸우다가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 또는 사망을 목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경찰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들, 외상성 사건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노출되고 깊이 관여하게 되므로 그 누구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박성수, 2002). 또한, Horowitz 등(1980)은 외상 피해자들이 긴장감, 공포감, 갑작스러운 두려움 등의 불안 증상과 우울한 기분, 심한 절망감, 무기력 및 자기 비하감 등의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소방공무원 및 지하철 기관사와 같이 대형 사고의 외상 사건에 일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서도 우울과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이옥정, 2010, 재인용).

해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Clair, 2006; Green, 2004; Marmar, et al.; Stephens, Long, & Miller, 1997), 업무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위기 상황 스트레스 해소(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를 채택하여 활용하는 등(Carlier, Voerman, & Gersons, 2000, 재인용)경찰공무원들을 위한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성원(2007)과 김자혜(2012)는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증상 또는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 및 대처방식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직접 및 간접 외상사건이 PTSD 증상을 증가시키고, 역기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PTSD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인지적, 정서적 회피반응이 PTSD증상의 심각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권용철, 유성은 2013).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이차적 증상인 우울의 발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외상성 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개인내적 및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반응양상과 같은 개인내적요인과 관련되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조직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외부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황인희(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 낮은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희, 2009).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생리적 결과와 불면증, 사기저하, 심리적 무력감, 불안, 집중력 상실 등의 심리적 결과,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행동적 결과의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직무 생산성의 저하와 동기 유발의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의 조직적인 차원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양승돈,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개개인의 대처방식 뿐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기인하는 외부환경적 요소인 직무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외상성 사건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및 우울 사이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밝혀, 향후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외상성 사건

DSM-III-R에서는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을 일반적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외상성 사건의 개념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DSM-IV(APA, 1994)에서는 외상성 사건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적으로 죽음,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상의 88.4%가 업무

중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다(황인희, 2009).

외상성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한 개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으며,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대체로 자발적 회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나타낸다. Carlier & Gersons(1994, 재인용)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을 두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항목은 ‘매우 폭력적인 사건’으로 총격, 인질 사건, 폭동 같은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둘째 항목은 ‘매우 우울한 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사건, 예를 들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고 피해자, 학대 피해자와의 대면 등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들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그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협과 직·간접적인 외상성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외상성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각성, 불안, 인지적인 회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과 연결될 수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재인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및 우울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1,045명을 연구한 결과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던 사람

들은 405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였고(신성원, 2007), 최근경찰공무원 2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4명(22.9%)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집단에, 48명(17.1%)이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집단에 분류되어 전체의 40%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정,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Violanti(2003)는 특정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는 것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며, 그것은 결국 알코올 사용과 자살 충동 동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Paton et al., 2009, 재인용).

우울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불어 외상 경험자가 흔히 겪는 정신장애로서 이들 집단의 정신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Hinton et al., 1998;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외상을 경험한 이후 개인에게 우울한 증상이 발생할 때 개인은 슬픔과 상실, 유기와 소외에 관한 주제를 보고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및 슬픔과 우울의 겹치는 부분, 외상후 우울과 높은 자살 경향성 사이의 연결은 우울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을 치료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Briere & Scott, 2008, 재인용).

직무스트레스

Margolis 등의 연구자들(1974)은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으로써, 과잉업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열악한 작업조건,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로 정

의하고 있다. Hellriegel과 Slocumm(1986)은 직무 스트레스를 환경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반응으로 개념화하고 있다(Patterson, 2003). French, Rogers와 Cobb(1980)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환경의 요구와 부적합하고 직무환경이 개인의 요구와 적합하지 못한 상태를 직무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있다. Violanti(1982, 재인용)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상황의 실패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될 경우에 직업적 요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그들 자신의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인지될 때 그것이 경찰공무원 스트레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다룬 Schreiber(1985, 재인용)는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의 효과는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조기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은 생리적, 심리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인 외상성 사건을 겪게 되면 개인 내적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상성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PTSD 증상과 우울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의 경기도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을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임의응답 및 무성의한 응답사례를 제외하고 총 500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외상성 사건을 측정을 위해 Thomas-Riddle(1999)의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이옥정(2010)이 한국 경찰 현실에 맞추기 위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 목록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차적 외상성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성 사건 14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1-10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한다.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및 이차적 외상성 사건의 개수의 합계를 양적측면의 변수로 설정하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의 합계를 질적측면의 변수로 설정하여 총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는 Horowitz(1979)가 외상 경험 후 충격과 적응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외상경험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침투와

회피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4점 척도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iss와 Marmar(1996)가 IES에 과각성 척도를 첨가하여 보완한 5점 척도의 IES-R을 이영이(2001)가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형한 IES-R 척도를 사용한다. IES-R은 3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투 7문항, 회피 8문항, 과각성 7문항 등 총 22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나타났던 증상의 빈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총 22점에서 88점의 범위를 갖는다. Weiss와 Marmar(1996)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고, 유지현(2006)의 연구에서 각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모두 .9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DI는 우울 증상, 신체증상관련요인, 실패 및 자신에 대한 불만관련 요인 그리고 자기비난과 죄책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항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자의 경험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0점에서 3점까지 평정되는 4점 척도로, 총점은 0점에서 63점의 범위를 갖는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우울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점은 16점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8, .75였고, 우울 임상 집단의 경

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직무스트레스.

김정인(1988)이 번안한 Ivancevich와 Matteson(1980)의 스트레스 진단검사(Stress Diagnostic Survey)의 30개 문항 중에서 20문항을 그리고 이종목과 박한기(1988)의 직무 스트레스 척도에서 조직 및 직무관련 하위 요인의 20개 문항들 중에서 김혜숙(2003)이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분석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총 32 문항으로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혜숙(2003)이 재구성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다. 원 척도에서는 객관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스트레스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주관적인 스트레스만 측정하도록 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1, 매우 많이 느낀다면 5에 응답토록 하여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18.0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둘째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및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

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들 중 남성이 439명(87.8%), 여성이 55명(11.0%)으로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30대가 194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2명(10.4%)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결혼 상태에서 기혼이 354명(70.8%), 미혼이 140명(2.8%)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261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을 살펴보면 순경이 147명(29.4%), 경장이 122명(24.4%), 경사가 122명(24.4%)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근무부서는 지구대/파출소가 229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경찰서 내근에 103명(20.6%)이 해당되었다. 근무 경력은 5년 이하가 16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 PTSD 증상(IES-R), 우울(BDI), 직무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r=.47$,

$p<.0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r=.62$, $p<.01$)는 PTSD 증상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외상성 사건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r=.34$, $p<.0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r=.49$, $p<.01$)는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외상성 사건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외상성 사건은 외상성 사건의 수와 충격정도의 두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종속변수인 PTSD 증상과 우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를 살펴봄으로서 조절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외상성 사건의 수가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PTSD 증상에 대해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의 설명량은 $R^2=.22$, $p<.001$ 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R^2=.39$, $p<.001$ 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R^2=.42$, $p<.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가 PTSD 증상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이다. 그림 1은 PTSD 증상에 대한 외상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39	87.8
	여	55	11.0
	무응답	6	1.2
연령	20대	94	18.8
	30대	194	38.8
	40대	146	29.2
	50대	52	10.4
	무응답	14	2.8
결혼상태	미혼	140	28.0
	기혼	354	70.8
	이혼	5	1.0
	무응답	1	0.2
학력	고졸	135	27.0
	전문대졸	86	17.2
	4년제 졸	261	52.2
	대학원 졸	16	3.2
	무응답	2	0.4
계급	순경	147	29.4
	경장	122	24.4
	경사	122	24.4
	경위	76	15.2
	경감	19	3.8
	경정외 기타	11	2.2
	무응답	3	0.6
근무부서	과학수사대	70	14.0
	형사/수사	67	13.4
	지구대/파출소	229	45.8
	지방경찰청/경찰서내근	103	20.6
	교통사고조사(외근)	17	3.4
	기타	14	2.8
근무기간	5년 이하	169	33.8
	6-10년	81	16.2
	11-15년	83	16.6
	16-20년	71	14.2
	21년 이상	96	19.2

N=500

표 2.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외상성 사건 수	-				
2.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78**	-			
3. IES-R	.47**	.62**	-		
4. BDI	.34**	.49**	.60**	-	
5. 직무스트레스	.39**	.48**	.56**	.55**	-
평균(M)	11.82	51.15	38.13	7.90	95.89
표준편차 (SD)	5.78	19.04	15.10	9.30	17.99

N=500, **p <.01

표 3. 외상성 사건의 수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β	R ² 변화량	R ²	Adj R ²	F
1	외상성 사건의 수	.47***	.22***	.22	.22	142.58***
2	직무스트레스	.44***	.16***	.39	.38	156.23***
3	외상성 사건의 수 × 직무스트레스	.18***	.03***	.42	.41	118.68***

N=5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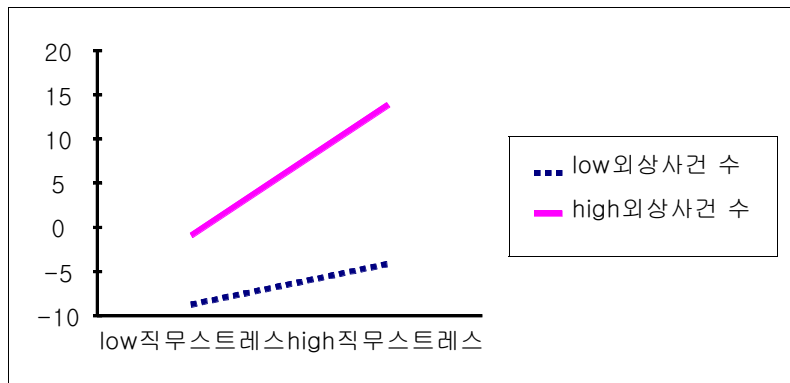


그림 1.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 상호작용효과

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Cohen과 Cohen(1983)의 절차에 따라 두 변인의 중심화(centering) 절

차를 거쳐 $\pm 1SD$ 를 기준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둘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PTSD 증상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를,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의 설명량은 $R^2=.38$, $p<.001$ 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R^2=.47$, $p<.001$ 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R^2=.49$, $p<.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 모두 PTSD 증상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표 3과 표 4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의 PTSD 증상에 대한 영향력은 $\beta=.47$, $t=11.94$, $p=.000$ 로 유의하였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의 PTSD 증상에 대한 영향력은 $\beta=.62$, $t=17.63$, $p=.000$ 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개수보다 PTSD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과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레

표 4.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β	R^2 변화량	R^2	Adj R^2	F
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62***	.38***	.38	.38	310.92***
2	직무스트레스	.33***	.09***	.47	.47	220.07***
3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 직무스트레스	.15***	.02***	.49	.49	158.41***

N=5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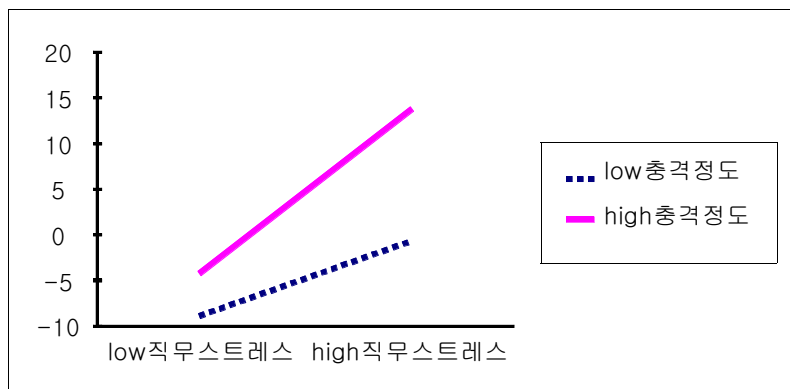


그림 2.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한다.

셋째, 외상성 사건의 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의 설명량은 $R^2=.11$, $p<.001$ 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R^2=.32$, $p<.001$ 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R^2=.37$, $p<.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

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이다. 그림 3은 우울에 대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넷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를,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의 설명량은 $R^2=.24$, $p<.001$ 로 유의하였고, 2단계도 설명량은 $R^2=.37$, $p<.001$ 로 유의하였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량 역시 $R^2=.42$, $p<.001$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상성

표 5. 외상성 사건의 수와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β	R^2 변화량	R^2	Adj R^2	F
1	외상성 사건의 수	.37***	.11***	.11	.11	63.24***
2	직무스트레스	.50***	.21***	.32	.32	117.72***
3	외상성 사건의 수 × 직무스트레스	.21***	.04***	.37	.36	95.10***

N=5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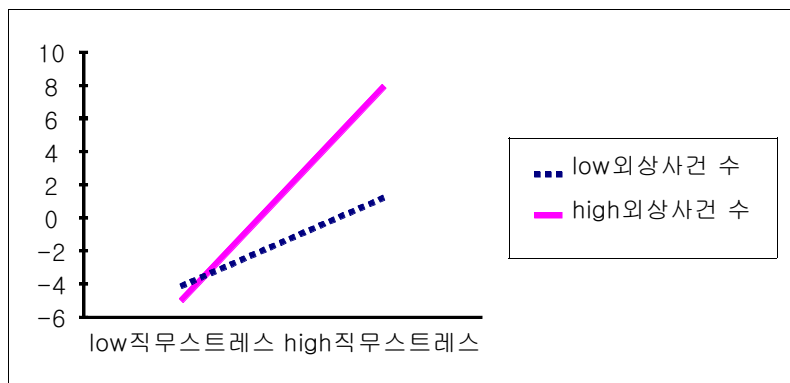


그림 3.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레스 상호작용효과

표 6.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β	R ² 변화량	R ²	Adj R ²	F
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49***	.24***	.24	.24	154.68***
2	직무스트레스	.41***	.13***	.37	.37	144.25***
3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 직무스트레스	.24***	.05***	.42	.41	118.71***

N=5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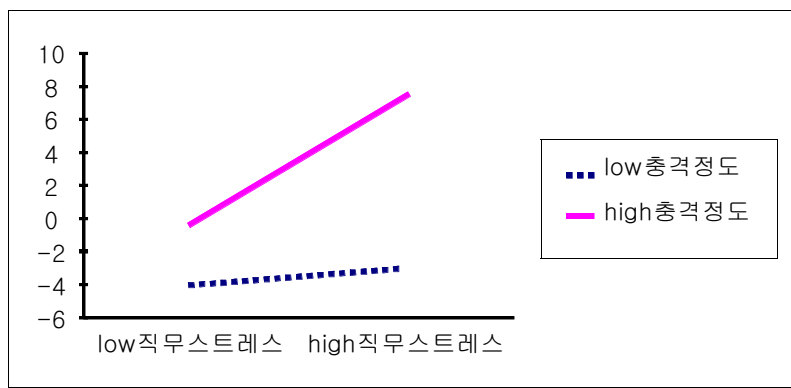


그림 4.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 모두 우울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표 5과 표 6을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37, t=7.95, p=.000$ 로 유의하였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49, t=12.44, p=.000$ 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개수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우울에 대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

할수록 우울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를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충격정도가 클수록 PTSD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충격정도가 클수록 PTSD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이는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로 인해 누적된 영향은 더 심한 PTSD 증상을 가져오며 (Clair, 2006; Stephens & Long, 2000, 재인용) 사건의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armar, et al., 2006)와 일치한다. 또한 국내의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에 PTSD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인 충격정도가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충격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보다 충격정도가 PTSD 증상과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격정도가 증상에 대한 원인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외상성 사건을 겪은 개인들에게서 PTSD 증상과 우울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외상성 사건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PTSD 증상 및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찰기관들이 PTSD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 개입으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임인 ‘위기 상황 스트레스 해소(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찰 외상 정책(Police Trauma Policy)’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경찰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신건강을 위해 외상성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한다면 PTSD 증상 및 우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하위차원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조절효과를 보여,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하위차원 모두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조절효과를 보여 외상성 사건과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양승돈, 2004; 황인희, 2009). 이를 바탕으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조절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찰공무원들은 신체적, 심리적 자원이 소진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미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더해 외상성 사건을 겪게 되면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경찰공무원보다 비교적 PTSD 증상 및 우울을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경험이 PTSD 증상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 및 우울을 대처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외부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직적인 차원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PTSD증상의 발현을 예방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Williams(1993)는 직장 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외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그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며, 외국연구들은 동료지지를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Stephens & Long, 2000). 하지만 모든 종류의 사회적 지지나 대화가 반드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화상대와 대화방식 그리고 정서적 해소 여부 등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전문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동료나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지지라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Stephens & Long, 2000; Paton et al., 2009; 신성원, 2007; 이옥정,

2010). 따라서 경찰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동료 사회지지 체계구축에 있어 훈련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여러 경찰서들은 외상성 사건 경험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경찰관들을 상담하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직 또는 전직 경찰관들로서 ‘동료 상담’ 혹은 ‘동료지지’(peer supporting)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Carlier (1997) 등의 연구에서는 71.4%의 경찰관들이 외상성 사건 관련 업무를 경험한 후에 동료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서비스를 사용한 경찰관 중 22.3%는 PTSD 발병에 있어서 더 낮은 위험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동료지지 서비스가 PTSD 예방에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화된 경찰 동료지지 프로그램에서 동료 상담가들은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자살 시도, 알콜 또는 약물 남용 등에 대해 배우며, 또한 위기이론과 개입, 그리고 다양한 상담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동료 상담가들의 역할은 동료나 후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비밀이 유지되는 상담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의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동료 경찰 상담은 경찰관의 외상성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며, 다양한 동료지지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Paton et al, 2009).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조직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경찰관들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외상성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공적인 장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경찰공무원들은 특히 과학수사대나 강력계 근무자들의 경우 자주 심한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지만, 이러한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서도 별도의 심리 상담이나 보살핌 없이 바로 다시 업무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미해결 정서가 축적되어 심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억압해버리거나 혼자 삭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유진(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경찰관들의 자기노출,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 경찰관들의 자기노출 수준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경찰관들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그리고 위험한 업무 등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찰의 직무스트레스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수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증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좀 더 유연하고 공감적이며 지지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험이 많은 퇴역 경찰관이나 현직 경찰관들 중에서 소양이 있는 자원자들을 선발하여 동료-지지 상담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장차 동료 상담가로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 개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연령 및 근무기간에 따른 PTSD 증상 및 우울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연령 및 근무기간 증가에 따른 어떠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반복적인 외상성 사건에 대한 노출경험이 PTSD 증상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연령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제공의 내용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경찰공무원의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경찰공무원 집단의 전체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용철, 유성은 (2013).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649-665
- 김 구 (2005).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

- 향: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6(3), p.59-87
- 김자혜, 김정규 (2013).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한국경찰연구, 12(3). 27-50.
- 박성수 (2002).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지영 (2004). 119구조대원 및 그 가족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7권, p.158-191.
- 배점모 (2011).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성원 (2007).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승돈 (2004).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현 (1998).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 완충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지현 (2006).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정서 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예심 (2007).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건충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현 (2005). 경찰동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정 (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유진. (2010).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성아 (2009). 직무수행 중 사상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승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ll, J. L. (1995). *Traumatic event debriefing: Service delivery design and the role of social work*. Social Work 40, 36-43.
- Brown, J. M., Campbell, E. A. (1990). *Sources of occupational stress in the police*. Work and Stress, 4, 305-318
- Carlier, I. V. E., Lamberts, R. D., & Gersons, B. P. R. (1997).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85, 498-506.
- Carlier, I. V. E., Lamberts, R. D., & Gersons, B. (2000).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debriefing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debriefing. *Disaster Management*, 2(1), 25-30.
-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7(06), 3443.
- Green, B.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s.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 Opinion*, 20(1), 101-105.
- Ivancevich, J. M., & Matterson, M. T. (1980).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Glenview, IL: Scott
- Thomas-Riddle,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 Marmar, C., McCaslin, S., Metzler, T., Best, S., Weiss, D., Fagan, J., Et al. (2006).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in Police and Other First Respon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071, 1-18.
- Paton, D., Violanti, J. M., Karna, B., & Gehrke, G. (2009). Traumatic Stress in Police Officers: *A Career Length Assessment from Recruitment to Retirement*.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Stephens, C., Long N., & Miller, I. (1997). The impact of trauma and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study of New Zealand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5(4), 303-314.
- Stephens, C., & Long, N., (2000). Communication with police supervisors and peers as a buffer of work-related traumatic str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407-424.
- Williams, T. (1993). Trauma in the workplace. In: Wilson, J. P. and Raphael, B.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and Syndromes*, Plenum Press, New York, pp. 925±934.
- 원고접수일 : 2013. 12.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4. 20.
게재결정일 : 2014. 05. 12.

The Relation of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Han Bo Ram

Severance Hospital

Kim Jung Kyu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The Traumatic event scal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Job str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500 police officers working in Gyeonggi-do. To determine the relation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interac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were run using obtained data. Results indicated that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 events caused PTSD symptoms and depression. In particular, subjective amount of shock of traumatic events was a stronger predictor than the number of traumatic events in PTSD symptoms and depression. Results also showed a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in relation to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lice officer, traumatic event, PTSD symptom, Depression, Job stress